

추도사

수산당 지종 대중사님!

깊은 주름마저 미소로 화하던 소탈한 모습이 아직도 선한데, 꽃바람 금새 휘돌아 나가더니 어느새 49재를 모시는 날이 되었습니다. 스님의 행장을 되짚어 볼수록 넓고 큰 행원(行願)이 사무쳐 오지만, 스님의 여향(餘香)이 꽃바람 따라 널리 퍼지니 황망했던 마음은 이제서야 여미어 집니다.

향화(香花)를 올리는 이 시간의 깊은 뜻으로, 남아 있는 중생의 상심과 불안은 미래를 위한 성찰과 지혜로 승화되고 있습니다. 인연의 마디를 또 하나 매듭하는 찰라에도 이 자리의 후학들은 서로가 보이는 감화의 묵언에서 스님의 가르침을 느끼고 있습니다.

방장스님!

환을 여인 본가에서 지금도 그 맑은 미소로 저희들을 지켜보고 계십니까. 후학들은 자기집착에 빠지지 않도록 수행정진에 매진할 것입니다. 무위진인은 하루 아침에 되기 어렵다 해도 그 노력은 당장에라도 할 수 있으니, 참사람을 찾는 데도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더불어 주인공을 찾는 노력을 쉬지 않으며 언제나 스님처럼 하심하겠습니다.

일을 하거나 밥을 먹거나 잠을 자거나 화두 속에서 정진하는 끊임없는 실참 수행 가운데서도 가람수호와 대중교화에도 남다른 원력을 펼치셨으니, 후학들은 스님과 같이 가람수호와 대중교화에도 진력하여, 불조의 은혜를 갚고 시을 저버리지 않는 가르침을 실천할 것입니다.

수산스님!

꽃이 지고 바람에 흩어지니 이별인줄만 알았는데 꽃이 진 자리엔 생명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스님의 덕화와 스님의 수범이 생명의 기운으로 남아 있으니 스님의 미소에 수행자는 정진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스님의 일대사 안거가 이제야 해제를 하는 것이니 스님의 임종계를 해제법문으로 삼아 참사람이 되도록 진력을 다할 것입니다. 더불어 제 정신으로 사는 삶을 통하여 정진할 것이니 본가에 계시더라도 언제나처럼 참사람의 명명백백한 면목을 내보여 주소서.

불기2556년 4월 24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